

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 그가 끼친 공헌 중 주목할 것은 그 당시 칼빈주의자들의 선교가 미미하던 시대에 에드워즈는 칼빈주의자이면서 인디안 선교에 중요한 공헌을 끼쳤고 무엇보다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David Brainerd 1718-1747)의 선교적 생애와 일기를 책으로 편집하여 윌리엄 케리(William Carey, 1761-1834)를 비롯한 수많은 위대한 선교사들에게 영향을 끼친 점이다. 본고에서는 에드워즈의 생애를 그가 경험한 대각성 운동, 인디안 선교사 사역, 그리고 그의 저술로 현대선교에 끼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는 에드워즈의 생애처럼 부흥과 선교가 얼마나 밀접하고도 균형 있게 이루어지 살펴보면서 영적, 양적 침체상태에 놓여 있는 한국교회에 참다운 부흥과 선교가 재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에드워즈의 생애에 대한 소개

1) 출생 배경과 어린 시절

에드워즈는 요한 웨슬리(John Wesley)와 동갑내기였다. 1703년 10월 5일 코네티컷 주의 윈저에서 11남매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에드워즈의 고조부는 영국에서 목회를 하였으며 그가 죽은 후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164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개척자의 삶을 시작한 것이 에드워즈 가문이 뉴잉글랜드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다. 에드워즈의 조부 윌리엄은 갑부였지만 가정적인 많은 문제로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다. 불행했던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장남이었던 에드워즈의 아버지 디모테 에드워즈는 두뇌가 명석하여 하버드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였으며 에드워즈가 태어난 회중교회의 목사로서 63년 동안을 시무할 정도로 성실한 성직자였다.²⁾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과 사상 그리고 그의 근면한 삶의 터전은 아버지 디모테와 어머니 에스더의 영향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신앙심이 매우 돈독

2) Perry Miller, *Jonathan Edwards*, (Cleveland: The World Publishing Co., 1964), 35.

한 여인으로서 그의 영적인 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의 아버지도 역시 신앙심이 돈독한 기독교인으로서 규율과 도덕과 미덕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어머니 에스더는 에드워즈에게도 깊은 영향을 끼쳤고 에드워즈를 훈련시켜 후계자로 삼았던 솔로몬 스토다드 목사의 딸로서 철저한 교육을 가정의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있었다. 아버지 디모데는 이스트 원저 회중교회에서 무려 61년간 목회했는데 그 긴 세월의 목회 중에는 물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아버지 옆에서 그것들을 지켜보며 자란 조나단은 자연스레 목회의 여러 측면들을 관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한 경험들은 장래의 목회자를 위한 좋은 실천 신학 교육이었다. 디모데 목사는 평생 단 한 편의 설교밖에 출판하지 못했지만 그의 설교에는 청중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다. 그것은 후일 에드워즈가 부목사로 동역했던 외조부 스토다드 목사의 설교와 함께 조나단의 설교에 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³⁾ 에드워즈의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토다드는 에드워즈의 영적인 성장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가정의 영적·지적인 분위기는 조나단 에드워즈로 하여금 7~8세인 어린 시절부터 두 번의 각성의 계기를 통하여 신앙의 상태와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그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다섯 번씩이나 기도 시간을 가졌으며, 친구들과 함께 신앙에 관한 대화와 기도생활을 할 정도로 그의 영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⁴⁾

에드워즈는 여섯 살 때부터 그의 아버지 디모데에 의하여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하여 13세에는 라틴어,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었다. 에드워즈는 12세에 부흥성가를 작사하였고, 거미에 대한 논문을 쓰기도 하였다.

3) 양낙홍, 『조나단 에드워즈 생애와 사상』(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3), 117.

4) 조나단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는 없을까?』, 백금산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3), 119-153.

2) 예일대학에서의 신학수업과 목회

13세가 되던 1716년 그는 새로운 설립된 예일대학에 입학하였고, 1717년에는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Notes on the Mind)라는 논문을 썼다. 이 논문은 존 로크(John Locke)의 사상을 크게 반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학자에 의하여 연구될 정도의 수작이다. 그는 1720년 예일대학을 최우수로 졸업하였다. 에드워즈의 회심은 예일 대학원 시절인 1721년 5~6월경인 18세 때 디모데전서 1:17을 통해서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그는 영적인 일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감각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목상하며 찬송하게 되었다. 회심을 체험한 에드워즈는 영적·지적 준비를 마치고 사역할 수 있었다.⁵⁾

에드워즈는 1721년(19세에 뉴욕에 있는 한 작은 장로교회를 맡아 8개월간 섬길 수 있었다. 같은 해 예일대학 교수들이 자유주의를 표방하므로 해고 되자, 에드워즈는 1723년 뉴욕의 장로교회를 사임하고, 정통신학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예일대학으로 가서 강사가 되었다.

1727년 뉴헤이븐의 목사인 제임스 피어폰트(James Pierpont)의 딸인 사라(Sarah Pierpont)와 결혼하였고, 그의 외조부인 솔로몬 스토타드가 목회하던 노스앰튼 회중교회의 부목사로 부임하였다. 에드워즈의 잠재적인 능력을 보고 자신의 부목으로 불러왔던 외할아버지 인 솔로몬 스토타드

5) 에드워즈는 18세쯤 놀라운 회심을 체험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략 1여년에 걸쳐, 평생 살아 갈 자신의 자세와 태도를 '70개의 결심문'으로 만들었다. 특히 그의 결심문이 기록된 배경과 자신이 결심문에 따라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일기는 1723~24까지의 것들이 주로 남아있다. 백금산 목사는 이 내용을 5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1) 종말의식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시간 관리로 시간의 중요성인식, 종말론적 사고방식의 생활, 시간 관리의 우선순위결정, 효율적 시간관리 방법 모색, 정기적인 평가시행 (2) 자기 자신 및 세상과의 영적 싸움으로 자기 부인과 죄 죽임의 영적 싸움, 본능적인 욕구의 최소화 지속적인 회개의 삶, 세상의 부와 편안한 삶에 대한 거부, 고난과 시련에 대한 태도 (3)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절인적 조화와 균형 (4) 철저하고 지속적인 경건의 습관으로 성경 묵상과 적용, 신학교 교리 묵상과 탐구, 균형 잡힌 독서, 기도와 찬양, 성도의 교제 및 전도 (5) 통전적이고 관계적인 기록으로 대화와 언어생활, 여러 감정(친절, 복수, 분노)에 대한 통제, 부모와 타인과 자연과의 관계로 분류하고 있다.

는 약 4년간 애정과 경험으로 에드워즈를 훈련시킨 후 세상을 떠났다. 얼마 후에 외할아버지의 계승자가 된 그는 자신의 이상과 이론을 목회에 적용하면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데 열의를 보였다.

그의 목회의 초점은 상담이나 심방보다는 설교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으로 회중들을 먹이는 것에 있었다. 그는 하루에 두 번 이상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학문연구와 설교준비를 위하여 하루에 13시간 서재에서 연구했다. 그의 생활은 규칙적이었으며 말을 타고 숲속을 다니면서 더 깊은 명상을 하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에드워즈의 성실한 목회의 이상은 허약한 체질 때문에 장애를 받게 되었고 병상을 지키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병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좌절이나 포기할 했던 적은 없었다. 오히려 거기서 깊은 명상과 미래를 위한 설계를 하는 삶의 지혜를 보여주면서 저작 활동을 계속하였다. 지적으로 뛰어난 에드워즈는 그 시대의 철학, 과학서적을 두루 섭렵했다. 특히 뉴턴과 로크의 서적을 많이 읽고 연구했다.

1734년경 알미니안주의의 물결이 뉴잉글랜드에 번지게 되자 에드워즈는 이에 대하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Justification by Faith Alone) 라는 일련의 설교를 행하였다. 이 설교에 의하여 노스앰튼을 중심으로 뉴잉글랜드에는 적어도 6-8개월 이상 큰 부흥운동이 있었다.

1741년 그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죄인”(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이라는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뉴잉글랜드의 부흥을 일으켰다. 하지만 1750년 23년간 목회하던 에드워즈가 노스앰튼 교회에서 추방된 이유는 중도 언약제(The half Way Covenant)의 사람들을 성찬에서 제외시킨 것과 청소년 범죄에 강력히 대항한데 있다. 중도 언약제의 사람들을 성찬에 참여시킨 사람은 바로 그의 외조부 스토타드였다. 그러나 에드워즈는 이러한 관례를 그릇된 것으로 여겼다.

중도 언약제는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인간 편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준비이론(Preparation theory)에서 나온 이론이다. 이는 알린

(Allein)의 “회심치 못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에 영향을 입은 것으로 알린의 책은 은혜체험을 위한 준비 이론의 지침서가 되었다. 이러한 준비 이론은 구도자(Seeker)들이 뉴잉글랜드에 많이 생겨남으로 나온 대안이다. 구도자들은 성령께서 그들을 중생시켜 주시기만을 고대하였다. 스토다드는 이들을 성찬에 참여케 하므로 은혜를 체험토록 하려하였고, 이들의 신실성에 따라 그들의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을 회개케 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식에 참여하기 위한 인위적인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었다. 즉, 자신들의 중생을 스스로 준비케 하게 하므로 마치 중생이 인간의 노력과 준비에 의존하는 개념을 낳게 되었다. 즉, 성찬에 참여하므로 은혜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성경의 교훈과는 상충하는 가르침으로써 인간의 행위가 중생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준비 이론’은 결국 영국과 스코틀랜드, 뉴잉글랜드의 신학을 죽이는 결과를 제공하였다. 에드워즈는 노스앰튼에서 추방된 뒤 글 쓰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자유의지론”(On the Will)이다. 이 책에서 그는 칼빈주의적인 입장에 서서 의지의 자유를 옹호하였는데, 그의 이러한 사상은 후에 영국의 홀(Robert Hall)과 찰머(Thomas Chalmers)에 영향을 주었고 정통 신앙의 핵심교리가 되었다.

칼빈의 교리 즉 하나님의 절대주권, 예정설에 대해 일찍 확신한 에드워즈는 이성의 시대의 새로운 발견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기의 신학적 기반을 견고하게 형성해 나갔다. 이러한 신학적 기반으로 인해 에드워즈는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얻는 종교적 체험이 전혀 없는 교인은 정상적인 교인이 될 수 없다는 선언을 하면서, 그의 전임자가 인정하였던 ‘회심하지 않은 자들의 회원자격’에 대하여 반대하고 ‘중도 언약(Half-way Covenant)⁶⁾을 인정하지 않았다. 에드워즈는 회중들을 고요한 정신과 바른 지식 가운데로 이끌려고 애썼으나 그 모든 수고가 헛되었다. 교인들은 대부분 에드워즈의 견해에 반대했다. 그들은 이미 그의 외조부가 확립해 둔 느슨한 교회 회원

6) 중도언약에 대하여는 조진모 「솔로몬 스토다드의 복음적 열정과 오류」, 『신학정론』 제42호(수원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2006), 438-444. 참조.

권의 조건 및 성찬 참여 자격을 엄격한 에드워즈의 그것으로 대치하기를 원치 않았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오랫동안의 격렬한 갈등을 낳았고 결국은 이웃의 교회들이 회의를 소집하고서 노스앰튼 회중의 요청에 동의하고 에드워즈를 목사직에서 사직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는 1750년 신임투표 결과 230대 23의 압도적인 표결로 교회를 사임하게 된다.⁷⁾ 이외의 문제는 사례문제, 인간관계 문제로 교회와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교회 안에서나 친척의 권징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원만하게 대처하지 못해 친척이나 교인들에게 원성을 받은 것을 보면 인간관계를 무난히 맺어가는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에 교회의 대표자 가운데 선두에 선 사람은 자살한 그의 이모부 조셉 홀리(Joseph Hawley)의 아들인 홀리였다. 그도 이후에 에드워즈에 대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자살하고 만다. 23년간 노스앰튼에서 자기 생을 바쳐 그 곳을 정통과 갱신된 영성의 센터로 만들었던 에드워즈는 46세의 나이에 아내와 일곱 자녀를 데리고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 그 후 에드워즈는 그 당시 변방인 스톡브리지(Stockbridge)에 가서 인디안 선교에 전념하였다. 7년간 인디안 선교를 하는 동안 그는 인디안 학대를 목격한 뒤 인디안 착취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스톡브리지로 보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에드워즈는 가장 위대한 걸작들에 속하는 몇 권의 책을 썼기 때문이다.

그 곳에서 7년간 사역하다가 1757년 12월 장로교도들이 뉴저지에 세운 프린스턴 대학(Princeton University)의 전신인 뉴저지 대학(College of New Jersey) 학장에 취임하였고, 그 대학의 큰 만족과 기쁨이 되었던 에드워즈는 1758년 자신의 몸을 천연두 백신 접종의 임상 실험 대상으로 제공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그 해 2월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⁸⁾

7) 정부흥,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119.

8) 오테코, 『장로교회사』(수원: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2006), 258.

3. 조나단 에드워즈의 인디안 선교와 부흥운동의 영향⁹⁾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야말로 미국 교회역사에 있어서 가장 확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임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종말론과 선교분야에 있어서도 그의 공헌과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 그동안 역사신학자들에 의한 에드워즈 연구는 주로 대각성운동(Great Awakening)과 연관되어 진행되어 왔으며, 그의 신학을 비롯한 사상사적인 면에 치우친 면이 다분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강조되어야 할 주제 중의 하나가 “선교사로서의 에드워즈”일 것이다.¹⁰⁾ 비록 적은 수의 학자들을 통해서 주장되고 있지만, 윌리엄 케리(William Carey)를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에드워즈는 “현대선교의 할아버지”라고 불려야 할 당위성이 존재한다.¹¹⁾ 왜냐하면, 그의 생애와 사역은 선교역사의 과도기 속에서 펼쳐졌으며, 신대륙(New England)에 이주한 청교도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상 끝까지 확장하시기를 원한다는 새로운 선교적 패러다임을 소유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드워즈는 선교의 총체적 측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지적이며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었다.¹²⁾

특히 에드워즈는 1730년대와 40년대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면서 인

9) 이 부분의 내용은 개혁신학 17집의 “조나단 에드워즈의 인디안 선교”에 관한 박응규 교수의 글을 편집 요약한 것임.

10) Ronald E. Davies, “Prepare Ye the Way of the Lord: The Missiological Thought and Practice of Jonathan Edwards (1703–1758)” (Ph. D.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88).

11) Ibid.

12) Stuart Piggin, “The Expanding Knowledge of God: Jonathan Edwards’s Influence on Missionary Thinking and Promotion,” in *Jonathan Edwards At Home and Abroad: Historical Memories, Cultural Movements, Global Horizons*, eds. David W. Kling, Douglas A. Sweeney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2003), 266–267. 이 논문에서 피긴은 에드워즈가 선교에 중요한 세 가지 요소들: “시간(time), 장소(place), 지적이며 영적인 능력(intellectual and spiritual power),”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선교에 있어서 “역사,” “지역,” 그리고 “선교정신”이라는 요인들을 제공함으로써 현대선교운동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런 면에서 선교를 중시하는 복음주의의 발전에 끼친 에드워즈의 영향력은 매우 지대하다. See D. G. Hart, Sean Michael Lucas, Stephen J. Nichols, eds., *The Legacy of Jonathan Edwards: American Religion and the Evangelical Tradition* (Grand Rapids: Baker, 2003).

디안(Indians 혹은 Native Americans) 선교야말로 부흥역사의 중요한 부분이며, 선교는 인류 역사에서 매우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모든 선교적 활동은 하나님의 구속역사라는 범주 속에서 일어나며, 그의 시대 속에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확신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처음으로 인디안 선교에 관련된 것은 1734년이였다. 그의 인디안 선교에 대한 관심은 메사추세츠의 서부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인디안들(Housatonic Indians)에 관한 문제로 존 스토다드(John Stoddard)의 노스앰튼 집에서의 모임에 참석하면서 비롯되었으며, 그 결과 “스톡브리지 선교(The Stockbridge Mission)”가 시작되었다.¹³⁾ 그리고 에드워즈의 신학교육을 받고 예일 대학교에서 강사를 지낸 존 서전트(John Sergeant)가 최초의 선교사로 스톡브리지의 모히칸 족들에게 선교사로 파송되었으나 선교적 열매는 미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엇를 비롯한 적지 않은 청교도 사회의 인디안 선교에 대한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개혁신앙에 근거한 선교적 의미가 그들의 선교사역을 통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¹⁴⁾ 바로 이러한 인디안 선교사역이 1749년부터 1758년까지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계승되었다.

1) 조나단 에드워즈의 인디안 선교

에드워즈의 인디안 선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은 인디안 정착촌 “스톡브리지 (Stockbridge)”이다. 메사추세츠에 살던 인디안들 중의 한 부족이었던 하우스토닉(Housatonic) 인디안들에 대한 선교사역은 존 서전트에 의해서 1734년부터 1749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인디안 선교를 위해 새로운 정착지를 만들게 되었고, 이곳에서 인디안 스스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선학교가 설립되고, 인디

13) Davies, “Prepare Ye the Way of the Lord,” 178.

14) Dae Sik Kim, “John Eliot,” 3.

인들의 전통주택인 가족으로 만든 원통형 가옥에서 영국 형 가옥을 보급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역이 후에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인계되었다.

당시 스톡브리지에서의 인디안 선교는 한 때 활발했다가 힘을 거의 상실해가고 있던 모히칸(Mohican) 인디안들과 아직도 건재한 모혹(Mohawk) 인디안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기숙학교(Boarding school) 형태로 영국식 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쟁탈전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인디안 부족들을 군사적이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포섭해야 하는 현실은 선교를 더욱 꼬이게 하는 요인이었다.

에드워즈의 순수한 복음의 동기가 위협을 받은 것은 비단 당시의 정치 군사적인 상황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솔로몬 스톡다드를 이어 교계의 실력자로 부상한 그의 외삼촌 윌리엄 윌리엄스를 비롯한 윌리엄스가(家) 사람들과의 대립관계였다. 윌리엄스 가도 일찍이 인디안 선교에 복음적인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나, 에드워즈의 선교관과 확연히 달랐던 것은 그들의 선교는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하기보다 선교를 동시에 자신들의 이권을 추구하는 기회로도 간주하였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스톡브리지의 선교명분을 누가 메사추세추정부로부터 인정받느냐가 관건이었기 때문에 에드워즈의 선교사역과 전면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벌어진 전쟁은 또 다른 복합적인 요소로 작용해 인디안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만 생각되었던 선교에 정치적 경제적 이권이 개입되는 예측하지 못한 양상이 되었다.

에드워즈가 스톡브리지로 이주했을 때에는 학교사업이 그런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곳에 온 그는 학교운영이 주요한 사역이 아님을 밝혔고, 학교 이상의 목회를 하는 것을 원하였다. 왜냐하면 인디안들에 대한 에드워즈의 구령열정은 분명히 그 시대의 것을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디안들을 목회하는 에드워즈의 사역을 통해 많은 인디안들이 불신의 늪에서

광명의 빛으로 인도되었고, 천국의 부분적인 모습들이 반영될 만큼 만족할 만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목회사역에 열중하면서도 에드워즈는 결코 학교를 통한 사역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다.

에드워즈는 스톡브리지에 부임하기 전부터 인디안 선교에 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외조부 솔로몬 스톡다드는 목회와 신학의 유산만을 손자 에드워즈에게 남긴 것이 아니라, 선교적 유산도 함께 남겼다. 1751년 노스앰튼 목회를 마감하고 스톡브리지로 선교사역을 위해 부임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¹⁵⁾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인디안 선교야말로 마지막 시대를 예비하는 선구적이고 준비적 단계라고 확신하고 있었다.¹⁶⁾ 에드워즈는 노스앰튼에서 목회하면서 이미 인디안 선교학교를 후원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그가 인디안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는 그들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표현방법들은 사용하지만 결코 설교나 전도의 내용에서는 축약하거나 생략하지 않고 본질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선포하였다. 에드워즈가 인디안 선교를 약 7년간 행하면서 200개 이상의 새로운 설교를 선포했고 그 중에 약 20개 정도만 이전에 설교했던 내용이였다. 그만큼 새로운 선교대상자들에게 적합한 말씀을 새롭게 준비하여 그가 백인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신학적 내용들을 거의 총망라하여 전했던 것이다. 이런 면에서 에드워즈를 “선교사 목사(missionary pastor)”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에드워즈의 종말구조 속에서 각성과 부흥운동은 하나님의 구속역사를 완성하는 준비 단계로 간주되고 있다. 그런데 에드워즈는 부흥운동의 자연스러운 귀결은 선교운동이라고 확신하였다.

15) Chaney, *The Birth of Missions in America*, 58; 양낙홍,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와 사상』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3), 671-673.

16) 선교사로서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Ronald Edwin Davies, “Prepare Ye the Way of the Lord: The Missiological Thought and Practice of Jonathan Edwards (1703-1758)” (Ph. D.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88). Cf. David W. Kling and Douglas A. Sweeney, *Jonathan Edwards at Home and Abroad: Historical Memories, Cultural Movements, Global Horizons* (Charlott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2003).

브레이너드와 함께 에드워즈의 선교신학은 선교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특히 영어권 기독교 세계에서 보다 개신교적 특성(the Protestant consciousness)이 확연해지는 선교의 길을 열어 놓았다.

에드워즈에게 선교는 구속역사를 움직이는 주된 동인이었다. 믿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며, 악에 대하여 선이 이기도록 격려하고, 택한 성도들의 아름다움을 완성하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교의 목적이야말로 초기부터 에드워즈의 주요한 관심사였다.¹⁷⁾ 이러한 목적을 완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선교어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일어나는 부흥운동이 선교운동을 촉진시키고 동력을 제공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각성운동은 무엇보다도 선교의 긴박성을 제공하고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소망의 계기로 인식되었다. 즉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특수하게 임한 시기이며, 그리스도께서 자비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에드워즈는 “선교야말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에서 주변적이거나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적이며 우선적인 것”이라고 간주하였다.¹⁸⁾

선교사역의 결과는 구속사역의 진보로 나타나며, 선교사(missionary)는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선택한 도구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¹⁹⁾ 그리고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선교와 부흥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役事)였다. 영적인 각성 혹은 부흥 운동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자각하고,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하게 임하게 하며, 그리고 죄인을 회심시키는 것들은 마지막 세대의 특징들임을 강조하였다.

17)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9: 124-25.

18) Davies, “Prepare Ye the Way of the Lord,” 102.

19) Chaney, *The Birth of Missions in America*, 73.

2) 조나단 에드워즈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선교열정과 영향

에드워즈에게 인디안 선교의 중요성을 보다 확고하게 일깨워준 인물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David Brainerd, 1718-1747)²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즈는 이 개인적인 슬픔을 영적인 교훈을 얻는 기회로 삼음으로 위로를 얻었다. 에드워즈는 브레이너드의 삶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살아있는 실례를 발견하였는데, 분명한 회심의 경험과 거룩함으로의 확연한 성숙, 그리고 열광주의로부터의 자유로움은 지울 수 없는 감

20) 브레이너드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헌신으로 불뛴던 청년이었다. 그는 1739년 21세의 나이로 예일대학에 입학하였다. 곧 이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당시 예일 대학을 방문했던 헛필드, 테넨트, 데네포트 등의 설교를 통하여 그의 열정은 더욱 불같이 타오르고 있었다. 학생시절에 몸이 상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뛰어난 성적을 올리고 학급의 지도자가 되지만, 1741년 졸업설교를 하기 위해 온 에드워즈는 총장 토마스 클랩의 기대와는 달리 뉴 라이트(New Light)를 두둔하는 설교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그 여파가 브레이너드에게까지 번지게 되었다. 브레이너드는 총장을 모욕했으며 금지된 뉴 라이트 모임에 참석했다는 구설수에 올라 학교로부터 퇴학을 당하게 된다. 예일대학 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일부 목사들의 강한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당시 영향력 있는 예일 동문으로 에드워즈를 비롯한 뉴 라이트에 속한 조나단 딕킨슨(Jonathan Dickinson)과 아론 비어(Aaron Burr)가 브레이너드를 복학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올드 라이트(Old Light)의 클랩 총장은 결코 그러한 시도에 요동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브레이너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고, 1742년 학위는 받지 못했지만, 회중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브레이너드는 같은 해 딕킨슨과 비어의 주선으로 1743년 스코틀랜드 선교회로부터 인디안 선교사로 파송 받았다. 브레이너드는 델라웨어와 서스쿼하나 강변에서 인디안 선교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으나 그 결과는 고생에 비해 너무 미약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1745년 뉴저지 트랜튼 남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인디안 부족들 가운데 놀라운 각성운동이 일어나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부흥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1746년 더 이상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의 몸은 약화되었다. 학생시절부터 홍역과 폐결핵으로 고생했던 그는 인디안 선교사역으로 인하여 육체적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고 수차례의 장거리 이동과 여행은 그의 생명을 더욱 단축시켰다. 그래서 1747년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고,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며 고향 뉴잉글랜드로 돌아가던 중, 그 해 5월에 노스앰튼에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집에 당도하였다. 이러한 브레이너드를 만난 에드워즈는 그가 평소 추구하던 신앙의 열정을 소유한 참 성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브레이너드를 맞이한 에드워즈는 불과 몇 주 전에 그의 부인 사라가 여덟 번째 딸을 출산한 상태였고, 계속되는 프랑스-인디안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의 집은 군인들의 속사로도 제공되고 있던 실정이었다. 또한 어려움을 당하거나 목회수업을 받기 위해 적지 않은 방문객이 에드워즈의 집을 드나들었다. 이러한 가운데도 사라는 찾아오는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헌신적으로 대하였다. 이러한 분주한 가운데 당시 17세의 제루샤(Jerusha)가 브레이너드를 정성껏 간호하였다. 제루샤는 어린 나이였지만 부모 못지않게 영성이 뛰어난 여인이었으며, 인디안 선교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남김없이 희생한 브레이너드의 신앙에 감화되어 극진히 그를 돌보았다. 정성어린 간호에도 불구하고 브레이너드는 1747년 가을 10월에, 서른이 채 되지 못한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4개월 후에는 제루샤의 죽음으로 이어지면서 에드워즈의 슬픔은 더해만 갔다.

격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그가 준비하던 알미니안 신학을 비판하려는 논문, 『의지의 자유(*Freedom of the Will*)』를 보류하는 대신에,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소재로 하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An Account of the Life of David Brainerd*)』를 편집 출판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다.²¹⁾ 이 전기에 소개된 브레이너드의 삶은 에드워즈가 추구했던 신앙의 열정을 잘 반영한 인물로서 경건과 영성이 지성을 앞서는 고귀한 삶으로 묘사되고 있다. 브레이너드의 선교사역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그의 내면의 영적 삶을 드러내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다. 브레이너드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야말로 진정한 사역자의 귀감이 될 만한 모범이었으며, 임종 직전에 그가 고통 중에도 인디안 선교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야말로 에드워즈의 마음에 크나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다.²²⁾

브레이너드의 고귀한 성품과 육체적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순종과 사명감은 에드워즈를 비롯한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의 사망 이후 에드워즈는 그의 일기를 생전에 허가를 받아 1749년에 출판하였는데, 이 책은 선교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일종의 안내책자가 되었고, 에드워즈의 저서 중에서, 그리고 미국의 독립 전에 출간된 책 중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폐간된 적이 없을 만큼 횡수를 거듭하여 출판되고 있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헌신한 브레이너드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부각되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는 선교의 동기를 부여하고 고귀한 내적 삶을 반영하는 선교사들의 필수적인 명저일 뿐만 아니라, 당시 선교사가 타문화와 민족과의 효과적인 전도와 선교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극소수의 서적 중의 하나였다.²³⁾

21) 이 책은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조나단 에드워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 윤기향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4).

22) Davies, "Prepare Ye the Way of the Lord," 186-188.

23) Andrew F. Walls, "Missions and Historical Memory: Jonathan Edwards and David Brainerd," in *Jonathan Edwards At Home and Abroad: Historical Memories, Cultural Movements, Global Horizons*, eds. David W. Kling, Douglas A. Sweeney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2003), 255.

이 책은 윌리엄 캐리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청교도 선교뿐만 아니라 현대선교에 있어서 기초를 마련해 놓았다는 점에서도 매우 높이 평가 받을만하다.²⁴⁾ 그런 면에서 에드워즈가 직접적으로 현대선교를 낳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 선교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그는 선교사들 개개인의 소명과 헌신과 사역에서 뿐만 아니라 현대선교의 발전과정에 있어서도 초석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브레이너드는 인디안 언어를 배우기 위해 아무도 없는 정글 속으로 32km를 빈번히 오가기도 했으며, 선교사역을 하는 중에 롱아일랜드의 가장 살기 좋은 이스트 햄프톤에서 목회해 달라는 청빙도 거절하였다. 에드워즈는 이러한 브레이너드를 통해 인디안 선교에 대한 열정을 얻게 되었고 실제적인 인디안 선교에 접하게 된다. 브레이너드의 짧은 선교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인디안 선교의 열매를 통해서 에드워즈는 사탄의 권세 하에 놓였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속역사의 완성을 향한 징표가 아닐 수 없었다.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인디안들의 마음 속에 조성되는 “놀라운 성향”은 에드워즈가 『신앙의 열정(*Religious Affections*)』에서 강조하는 인간이해의 중심 사상이었다.

마치 아타나시우스의 『안토니의 생애』가 초기 수도원 운동을 촉진시켰듯이, 에드워즈가 집필한 『브레이너드의 생애』는 현대 선교운동을 활화 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브레이너드의 모범적인 거룩한 삶과 선교의 헌신은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합주회 운동으로 연결되었다. 에드워즈는 브레이너드의 삶을 뉴 라이트를 대변하는 영성으로 소개함으로써 부흥운동이 지속되기를 소망하였으며, 이와 같은 영성운동은 19세기 이후 일어나는 선교를 강조하는 복음주의 운동의 초석을 놓기도 하였다.²⁵⁾ 또한 브레이너드의 예일대학 퇴학 사건은 프린스턴 대학의 설립동기वाद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의 삶과 전기가 후대 선교운동이 활발하게 전개

24) 김성태, 『세계선교전략사』(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108.

25) David W. Kling, “The New Divinity and the Origins of the 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 *Church History* 72: 4 (December 2003): 791-819.

되는 촉매역할을 하였다.

당시의 개혁신의 교회들의 선교활동은 매우 미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에드워즈는 평소 인디안 선교에 큰 관심을 두면서 본격적인 선교의 기회가 오기를 소망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선교의 열정이 브레이너드를 통해 표출된 것이다. 브레이너드의 전기를 통한 영향력과 더불어 심한 병중에도 그가 보스턴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1747년에 인디안 선교회가 설립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뉴잉글랜드에 설립된 최초의 선교기관이었다.²⁶⁾ 에드워즈도 후에 인디안 선교사가 되었으며, 브레이너드의 삶과 사역은 수많은 후대 선교사들과 선교단체들에게 선교에의 열정과 의미를 불어넣어 주었다. 뿐만 아니라, 브레이너드와 에드워즈의 선교관은 서구의 제국주의적 기독교(Christendom)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영적 각성과 부흥의 결과가 가장 소외되었던 인디안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안목과 계기를 제공하였다. 에드워즈는 브레이너드의 삶과 사역을 선구적인 선교사의 모범으로 제시함으로써 선교의 지평을 비 서구 세계로 확장시키는 데에도 기여하였다.²⁷⁾

4. 마치면서

고찰한 바와 같이 에드워즈의 부흥운동과 구속역사에 대한 관심, 선교를 위한 신학적 토대 조성, 그리고 브레이너드의 선교적 사표는 현대 선교운동의 발전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인들이었다. 에드워즈의 신학은 철저히 개혁신앙에 근거하고 있으면서, 선교와 부흥을 지향하는 특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개혁으로 말미암는 부흥과 선교(revival and mission out of reform)”가 절실한 이때에 에드워즈에 대한 관심은 더욱 집중되어야 한다.

26) “The first local missionary society in America was organized in Boston in 1747 in support of the mission at Onohoquaga through the influence of David Brainerd.” R. Pierce Beaver, “The Churches and the Indians,” 285.

27) Walls, “Missions and Historical Memory: Jonathan Edwards and David Brainerd,” 262-263.